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상대성 굴러 절대성 꽃 피운다

중생불 ②

그러하니 이걸 여러분들이 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이름 지어서 성품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마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영지라고도 말할 수 있고, 요새 우리가 말하는 절대성자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성자라고 있다는 걸 지금 알았거든. 알았어. 옳지, 내가 이 공부하려는 생각이 절대성자다.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도 절대성자라고 그리 생각을 해서 시장에 가서 이 물품을 팔고 가서 물건을 사 온다. 혹은 어떤 때는 들뜬 마음으로 미운 생각이냐. 어느 놈 그놈 도저히 사람 같지 않단 말이야. 미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도 절대성자라고 있기 때문에 미단다는 경계에 휘둘러서 미단다는 생각이 난다는 이걸 여러분이 아시거든. 알기 때문에 이걸 알면은 바로 성품을 본 거여. 견성이야. 견성이야 하면 성품을 본다는 건데 실에 있어서는 이 말 자체가 그릇된 말이야. 어찌 그릇된 말이냐. 성품을 본다는 하면 보는 놈이 따로 있고 성품이 따로 있어야 되거든. 그럼 법 두 나라 말이야. 그러나 이거를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견성이란 말이 이거 틀린 말이거든. 잘못된 말이거든.

그러나 이 견성이란 말은 이렇게 말을 안 하면 표현이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성품을 본다고 이렇게 말씀한 거여. 그러니까 하나도 틀린 말씀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성자라고 있기 때문에 상대성을 내가 굴린단 말이야. 절대성자라고 있기 때문에 상대성을 굴려서 절대성의 꽃을 피운단 말이야. 이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이거든. 그럼 벌써 견성해 버렸어. 솔직한 말로 견성이란 것이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야. 이전에는 어려웠어. 그러나 요새 과학이 발달해서 비행기가 달나라를 갔다 온다든지 텔레비전도 있고, 전부 실험하고 있던 말이야.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딱 맞아. 이전 사람들은 십 년 실험을 들어야 될 것을 요새 사람들은 일 년만 실험 들어도 되고 한 달만 실험 들으면 돼. 머리 좋은 사람들은 한 시간만 실험 들어도 돼요. 과학적으로 딱딱 맞거든.

그러하니 여러분은 그 과정을 지났어. 지났으니 여러분들은 지금 성품을 보고 있어요. 성품을 봤는데 여러분 자신들

이 봤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 왜 안 하고 있느냐. 견성이란 걸 무슨 별 것 같이 생각한단 말이야. 굉장한 건데. 그러하기 때문에 이전 어른들도 일평생을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 십 년 해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듯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선입관념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성품을 환히 보고 있으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행여 다른 데 더 좋은 것이 있지 않은가 찾고 있거든.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견성을 하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 견성한 줄을 모름 따름이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우선 첫째 견성이란 말이야. 견성을 하게 되면 망념이, 망심이 본적하고 진경이 본공하다는 걸 알아. 저절로 알게 돼. 이 절대성자라고 할 음으로써 상대성을 굴린다는 이걸 딱 알아 버리면 말이야 하루 종일 망념을 부려도 망념이 망념이 아니라. 진심이라. 하루

“

마음씨가 절대성 자리
마음 성품 사라지지 않는다.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날래야 날 수도 없는 그대로
생사는 전부 상대성 놀음

”

종일 경계로 더불어서 좋다 나쁘다 시비를 하더라도 벌써 그 성품자리를 딱 알아 버리면 그 경계가 공성이란 하는 걸 이미 다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망심이 본적이나 진경이 본공이나 이렇게 생각할 것도 없어. 뻔한 거여.

그러하니 나는 부처님 말씀한 거 허 뒤 집은 거여. 부처님이나 조사 어른들은 그 것부터 먼저인데, 나는 견성이란 이것부터 먼저 해야 한다 이거여. 하면 이전 저 행기가 달나라를 갔다 온다든지 텔레비전도 있고, 전부 실험하고 있던 말이야.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딱 맞아. 이전 사람들은 십 년 실험을 들어야 될 것을 요새 사람들은 일 년만 실험 들어도 되고 한 달만 실험 들으면 돼. 머리 좋은 사람들은 한 시간만 실험 들어도 돼요. 과학적으로 딱딱 맞거든.

그러하니 여러분은 그 과정을 지났어. 지났으니 여러분들은 지금 성품을 보고 있어요. 성품을 봤는데 여러분 자신들

놈이 뭣이나. 우리 또 이놈자를 붙인다 말이죠. 이를 붙여서 마음이라 합시다. 또 다른 말로 성품이라 합시다. 또 하나 다른 말로 하자면 절대성자라인데, 절대성자라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데, 이 절대성자라는 내 말을 듣고 있는데 다른 분별이 없거든. 다른 분별이 없어. 진경에 휘둘러지고 있어. 순전히 내 말만 듣고 있어. 이 듣는 이놈은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부터 있는 거여. 지금 현재 이 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요 마음씨가 절대성자리 마음 성품, 요 놈은 태양이 뜬게 아니고 지구가 뜨거워지고 뜨거워지고 육체 세계 무색계가 전부 밀가루같이 돼서 다 날아가더라도 이놈은 어디로 가든 게 아니야. 이놈은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날래야 날 수도 없는 그만 그대로라. 생사나 뭣이나 하는 거 전부 상대성 놀음이거든. 상대성놀음이란 건 전부 헛거라는 말 아니야? 변하는 거란 이런 말 아니야?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모른다 할지라도 우선 견성부터 먼저 해야 돼. 견성하기 전에는 책을 읽던 읽어도 소용이 없어. 안 되는 거여. 하기 때문에 일단 견성해야 돼. 견성하고 나면 망념이 본적한 걸 알게 돼. 진경이 본공한 걸 저절로 알게 돼. 알면서 나중에 망념도 상대성, 진경, 먼지의 경계, 진경도 상대성이거든. 상대성 굴리는 것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나가면은 문제는 달라. 오늘 이 시각부터 설법 듣는 것도 달라져요. 왜 그러느냐. 솔직한 말로 늘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이 부처 아니냐? 바로 여러분들이 노사나불의 화신이거든. 실에 있어서, 또 어제 인가 아래(그저께)인가 설법한 보신 화신 진짜가 아니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설산침침미타불을 백발이 성성 미타불이라 이렇게 한번 해서 공부하는 권도로 써 보지 않았어요? 창해가 망망적멸궁이구나 하는 걸 갔다 안광이 병령적멸궁이로구나. 여러분의 눈이 차가워, 환해. 이것이 적멸궁이란 말이야. 딱 깨놓고 하는 말이 안광이 병령적멸궁이로구나. 공부하는데 실감이 잘 걸립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적멸 중에 있거든요. 적멸. 삼매에 있거든요. 멸진정이고 삼매가 아니면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 몸품이 끌고 여기까지 못 와요. 또 따라서 내 설법도 듣지 못 해. 그런 거예요.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 보림선원

무상보리심 이루기 위한 방편 필요

⑩-2보개회향

발심을 하고, 무상보리심을 이룩해 나가는 데는 방편(方便)이 필요하다. 방편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방편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행근본방편(行根本方便)이다. 자기가 하는 행동, 그러니까 발심하는 행동의 근본이 되는 방편. 둘째는 능지방편(能止方便). 잘 못을, 허물을 그칠 수 있는 방편. 셋째는 발기선근방편(發起善根方便). 선근을 발해 일어나도록 하고, 다시 이를 더하고 키워 생장(生長)케 하는 방편. 넷째는 대원평등방편(大願平等方便)이다. 큰 원이란 평등해야 한다. 이를 평등하게 하는 방편.

행근본방편(行根本方便)은 이를 좀더 자세히 말한다면 다음과 같다. 일체의 모든 진리라는 것은 이를 우리가 터득해 볼 때 진리 그걸, 그 자체에는 결코 진리다. 무엇이냐. 하는 그런 상(相)이란 없다는 것을 안다. 이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때 벌써 망념된 생각을 여의었을 때다. 그리고 망념된 생각을, 견해를 벗어난 지경이란 생(生)과 사(死)라든지, 못살겠다든지, 잘 살아 보자는 등 하는 그런데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다. 일체의 진리 현상이란 인연에 화합(和合)된 것이다. 인연의 화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업과(業果)라고 한다. 우리의 행동이 진실하고, 부실함에 따라 그대로 역력히 나타나며, 진실한 대비심(大悲心)을 일으키어 모든 복덕(福德)을 닦아 나가는 것은 못사람들, 대사회(大社會)의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삼화(攝化)해 나간다는 것이다. 마음을 맞추어 수순하고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지경에서는 죽는다는 생각에, 이틀테만 정지 상태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며, 항상 정진을 거듭하는 것이다. 이는 진리에 수순하고, 방일(放逸)하지 않는 지경이다.

또 둘째의 능지방편(能止方便). 균일 때에 이르러서 능히 균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것이 무슨 소리냐 하면 참회와 반성을 하고 그래서 모든 그릇된 짓을 안 하도록 하고, 즉 균이하고 그리고 이미 한 일을 다시는 되풀이 하여 증장한다거나 해서는 안 되겠다. 해버린 일, 허물이나 과오는 돌이킬 수는 없지만 지난 일에 대해서는 오로지 반성과 참회가 있을 뿐이지 이를 비호하거나 변명함으로써 자기 합리화를 피하여서는 안 된다. 모든 진리에 수순함으로써 진리에 늘 순종하고 이를 따르

로써 과오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셋째의 발기선근방편(發起善根方便). 부지런히 삼보(三寶)에 공양하고, 예배드리고, 찬탄하고, 수희하고, 두호하고, 이런 연구로써 자기 스스로의 업장(業障)을 말끔히 씻어 버리고 선근(善根)을 증장(增長)한다. 항상 진리에 수순하고 연구로 하여 우리는 여러적이고 일찍진 지(礙)의 장애(障礙)를 벗어나야 한다.

넷째의 대원평등방편(大願平等方便). 우리가 지금 예경제불(禮敬諸佛)부터 수순증생(隨順衆生)까지에 걸쳐 얘기한 바이지만 발원(發願)을 하고 그대로 다보현(普賢)의 행을 해 나가야겠다. 다시 말하거니와 미래의 겁(劫) · 중생계(衆生界) · 허공계(虛空界) · 중생업(衆生業)이 다하도록 신구의(身心意) 삼업(三業)의 이와 같은 예참(禮懺), 광수공양(廣修供養), 칭

는 것은 눈 · 코 · 귀 같은 몸품이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말도 꽃피어 잘하며, 정신 상태로 진실한 사람들, 그들이 어느 한 군데도 빠지는 데가 없는 이를 끼리 모아야 한다는 것. 그러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편리하다는 것. 불사(佛事)에는 몸의 건강이 상당히 문제시 된다.

‘우리는 보현(普賢)의 수행을 닦아 행복을 죄다 이룩하고, 회향(廻向)하여 바라건대 번뇌 망상에 빠진 중생들로 하여금 빨리 무량(無量)한 밝은 부처님의 지경에 이르러 함께 살고자 한다.’

보현행(普賢行)이란 예경제불, 칭찬여래, 광수공양 등의 수행. 무량광(無量光)은 헤아릴 수 없는 대사회의 광명. 불찰(佛刹)은 밝은 부처의 지경. 그런데 이 회향은 비교종교학(比較宗敎學)으로 볼 때 불교에만 있는 것으로서 다른 데서는 찾을 수 없는 중요한 특색이 되어 있다. 다른 종교에는 이것이 볼 수 없었던가. 있으면 그렇듯 선명치 않다. 회향에는 앞의 회향삼처(廻向三處) 말고도 두 가지가 있어 왕생회향(往生廻向)과 환상회향(還相廻向)이 있다.

왕생회향은 우리가 수행하여 극락세계(極樂世界)에, 극히 안태하고 낙되는 그런 지경에 애써 이릅니다. 하는 말로 이것이 성취되었을 때 왕생회향이 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그런 극락세계에 가, 연꽃 위에 앉아 그만 할 일 없이 마냥 즐겁게 노닐기만 하느냐?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한 지경에서 다시 환상회향을 하여 괴롭고, 쓰라리고, 살기 어려운 우리 인간 사회의 고해(苦海)로 다시 나와 고해의 중생들과 더불어 호흡하고, 이 사람들과 함께 정토(淨土)의 업(業)을 보은 감사해야 한다. 그러한 생활이 이 지경에는 있어야 한다. 앞에서 말한 바이지만 회향(廻向) · 발심(發心) · 믿음, 이 삼자(三者)는 서로 떼어 놓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으로 얽혀 있다. 믿음은 그 중에서도 모든 것의 원토 대며 발심과 회향을 한 줄로 꿰뚫고 있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계) 중 제 2권에 실려 발췌한 것이다.

“
행동과 선근을 키우고
허물은 멈추고 큰 원을 세우고
일체중생 구제해야
수행해서 극락세계의
지경에 이르면 ‘왕생회향’
즐겁게 노니는 것만이 아니라
정도의 업 보은해야 한다
”

찬여래(稱讚如來) · 함순증생(恒順衆生) 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중생을 교화하고 건져 나감으로써 하나라도 남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일체 중생을 모두 다 건져 주어야겠다는 큰 원력을 세워 구경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평등하고, ‘우리 다 같은 행원(行願)의 동반자들, 대종이 모두 한 곳에 자꾸 모여.’
이 계승(偈頌)에서 동행자(同行者)란, 우리가 더불어 예경제불, 칭찬여래 등의 행원을 하는 모든 대중을 이른다.
‘몸과 얼굴과 코, 귀, 입, 팔과 마음이 다들 동등하여 이런 사람들 끼리 닦아 나가다.’
신구의업계동등(身心業皆同等)이라

현대불교신문 구독문의

-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울곧게 지행하는 힘
-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문의 전화 : 02)2004-8200



대진스님(참나선원)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효능

마기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기목 지팡이를 짚으면 굵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병안 마기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기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기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 분 60봉 두 재 분량) 오정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가향 마기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와 소개, 방영
- 2010년 10월24일 일요일 - 오전 7시 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기목, 효능방영
- 2013년 10월6일 수요일 - KBS1 TV 05시50분 내고향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기목 효능 방영

하. 마. 기. 목.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腎臟)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여 건강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腎氣),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기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민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상담문의 031-773-7838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십시오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계좌 : 규암신림 · 식품제조업 : 대구 목 제00619호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석악곡 (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순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 ~ 9:00
- 수강대상 : (1)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육천법음대 졸업, 중앙승가대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처명)